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52장 ----- 다같이
기 도 ----- 맡은이
성경말씀 ----- 에베소서 4:1-3절 ----- 인도자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설 교 -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 맡은이
찬 송 ----- 220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신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왜 중요한지,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1.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의 절박함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붓을 들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르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아 보이거나,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주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하나 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처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요구 될까요?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대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온유한 마음과 자세로 상대를 대하길 기대하십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가 성화되는 과정을 끈기 있게 참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두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이 모든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3.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역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의 하나 됨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복된 가정되시길 축원합니다.